



東國大同定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1년 (불기 2563년) 4월 1일 (목)

<http://dongguk.or.kr>

제255호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 갑시다”

제29대 총동창회장에 박대신 現 회장 재추대



▲ 제29대 박대신 총동창회장이 ‘동창회기’를 흔들며 힘찬 출범을 알렸다.

2021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로 참석자 최소화 …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로 진행된 정기총회.

본회 제29대 회장에 박대신(국어국문69, (주)동우 회장) 현 회장이 재추대됐다. 연임된 박 회장은 4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3월30일(화) 오후6시 모교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신임감사에는 송관수(회계학78, 공인회계사) 윤병관(화학공학82, 이지상사 대표이사) 김강균(경찰행정96, 변호사)동문이 뽑혔다.

이날 2021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을 최소화해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임원 및 회원은 원격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이사회 및 총회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동문들에게 생중계됐다.

이날 성원보고에서 본회 임선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임원 224명(위임 159명 포함)이 참석해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렸다. 이어진 총회에는 회원 및 임원 458명

(위임 359명)이 참석했다고 보고됐다.

박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전통을 재창조하고, 대학당국과 학교법인, 동창회간 소통과 화합으로 자긍심이 넘치는 동창회, 미래가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거듭나겠다”면서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 슬로건을 동문들과 함께 크게 외쳤다.

윤성이 모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대학으로 지속 성장시키겠다”면서 “신임 회장님과 더불어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20년도 회무 및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동창회관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 주인 △제29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에 송관수 · 윤병관 · 김강균 동문 선출



송관수 감사



윤병관 감사



김강균 감사

△제29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건은 리동영(불교 59) 본회 고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강병국 추대위원장은 추대위원회에서 회장에 박 대신, 감사에 송관수 · 윤병관 · 김강균 동문을 선출하였

“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
35만 동문이 힘을 모으면
동국대학교와 동국인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

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회장, 감사 순으로 후보자별 인준안을 상정하여 모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2020년도 회무 및 결산안은 윤병관 감사가 감사보고를 통해 ‘적정의견’을 냈고, 회무에 대해서도 회칙이나 법령 등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2020 회계연도에서 2021 회계연도 이월금은 3억6백여만원이었다.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새로 구성되는 신임 집행부에 위임됐다.

△동창회관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 주인은 임선기 사무총장으로부터 소송 배경 및 경과보고를 들은 뒤 “이 건은 우리 35만 동문들의 꿈과 희망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신임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자”는 동의 발언에 재청, 삼청이 이어져 원안대로 의결됐다.

단위 동창회 등서 축하화환 보내와

총회에는 전영화 25~26대 총동창회장과 산하 단위 동창회 임원 및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윤성이 총장을 비롯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애주 대외 협력처장 등이 동참했다.

송석환 24대 총동창회장과 김오현 상임부회장은 총회 경비를 협찬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성우스님, 윤성이 모교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총장과 경주직할 조덕형, 부산 박진호, 대구경북 손기범, 광주전남 고천석, 전북 전주 장세균, 대전충남세종 김종욱, 인천 유기동, 경남 김희배, 춘천 이덕수, 서초강남지부 송인모, 여자 김애주, ROTC 윤제민, 행정대학원동창회장 법타스님 등은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학위수여식,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중계

서울·경주 총 4,204명 졸업…동창회 신입 회원으로 자동 가입



▲ 봄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중계됐다.

올해 학위수여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미리 녹화한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학위수여식이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최소한의 격식을 갖춘셈이다.

2월16일 중강에서 진행된 서울캠퍼스 봄 학위수여식은 윤성이 총장과 교무위원, 박대신 총동창회장, 졸업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교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영상으로 졸업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학위수여 인원은 박사 93명, 석사 477명, 학사 2,326명 등 총 2,896명으로 모두 동창회 신입회원이 됐다.

총동창회 고문인 송석환(농경64) 동진

기업(주) 회장에게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윤성이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미래사회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제 곧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에게 그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보다 다양한 인연을 맺을 것”이라며 “오늘 졸업의 영광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인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사회에서 명문 동국대 동문의 자부심을 갖고, 코끼리의 기상으로 용맹정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교 동국 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캠퍼스 곳곳에 포토존 설치

한편 졸업생들은 개별적으로 학사모와 학위복 차림으로 삼삼오오 캠퍼스 곳곳에서 카메라에 추억을 담았다. 학위증 교부, 학위복 제공, 기념사진 촬영 포토존 이용은 각 단과대학별로 일정을 달리해 제공됐다.

경주캠퍼스도 유튜브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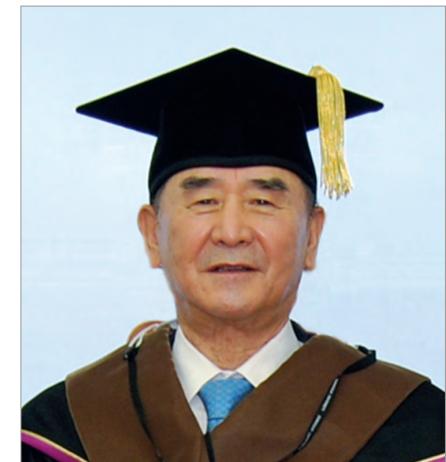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은 2월17일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학사 1,254명, 석사 43명, 박사 11명 등 총 1,308명이 학위를 취득하며, 총동창회 새 회원이 되었다.

이영경 경주캠퍼스총장은 환송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달라”며 “자신이 가진 역량을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나를 넘어서고 나를 이겨내어 모두가 각자 바라는 곳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석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취지서 요약



△1975년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동진기업(주)를 창업하였으며, 현재 국내 5개 계열사와 해외법인 3곳(미국, 중국, 캐나다)을 두고 있다.

△모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7천만원을 약정하고 로터스관 건립 기금, 정각원 발전기금, 인재육성장학기금 등으로 3억9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김천중고등학교 교육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약 40억원을 헌납했다.

△2014년부터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발전기금으로 9억원을 기부하는 등 총동창회 위상 제고, 모교발전에 기여했다.

상임위, 임원추대위원회 구성



본회 제29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 추대위원회는 1월21일 대면 상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추천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부지침에 따라 부득이 서면 및 SNS 방식의 비대면 회의로 대체됐다. 비대면 상임위원회는 추대위원 추천을 총동창회 사무처에 위임했으며, 이에 사무처는 회장 및 감사 선임 규정에 따라 대학, 학과, 지역, 직능별 동창회 등 산하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5명의 추대위원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어 사무처는 내정된 추대위원 명단을 상임위원회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 확정

했다.

〈집행부〉 △위원장= 강병국(농경64, 본회 지도위원) △부위원장= 김환배(연료공학68, 본회 사업재정위원회) △간사= 이인석(전자80, 前 ROTC동문회장)
〈위원〉 △이경석(도시공학67, 강서동문회) △오정석(농학72, 근로장학생회) △김상일(건축75, 前 모교 평의회 의장) △문선배(경영75, 동경장학회 이사장) △허창식(영문75, 前 영문과동창회장) △김애주(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 △송일석(미술76, 본회 사업재정부위원장) △공영대(화학78, 모교 화학과 교수) △김문선(전자79, 다물시스템 대표이사) △윤재민(사학81, 범우사 대표이사) △조충미(교육81, 여자동창회 수석부회장) △조덕형(조경84, 경주동창회장)

1차 추대위, 일정·후보 물색 논의

1차 추대위원회 회의가 2월26일 오후 5시 총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추대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임원 선출을 위한 일정과 흥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임선기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위원 선임 및 위원장 호선 경과 △추대위원

역할 및 활동기간 △정기총회 개최관련 향후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추대위원들은 “모교 발전 기여, 동창회 재정 안정, 사회 활동 등의 재반 조건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인물을 35만 총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모시도록 역할에 충실히”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만장일치 선출

제2차추대위원회, 후보자 질의 응답 거쳐

본회 임원 추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29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대신 현 회장을, 감사에는 송관수(회계78) 동문 등 3인을 각각 후보자로 선출, 총회에 추천했다.

2차 회의는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자리로 추대위원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11일 오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선기 사무총장은 2월18일부터 3월10일 오후 2시까지 회장 및 감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회장 1인, 감사 3인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보고했다.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입후보자(회장 1인, 감사 3인) 전원을 차기 임원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임원 선출에 앞서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 설명을 들은 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질의에서는 △동창회관 이전이나 모교와 공동관리중인 회관건립기금 관련 소송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은(조충미 위원) △동문회합과 통합을 위한 방안과 네트워크(인적관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

인지(오정석 위원) △지역동창회 발전을 위한 복안은(조덕형 위원) △회관건립기금 관련 소송보다는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김상일 위원) △후보자는 앞으로 2년동안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은(허창식 위원)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자.(공영대 위원)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모교의 위상, 동창회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는지(김애주 위원) △동문화합과 발전을 위해 동창회관 건립기금을 마련하는 미술전시회 개최에 대해서는(송일석 위원) △임기종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무엇이고, 그 구체적 대안은 어떤것인지(이경석 위원) △학교법인, 학교 당국자들과 정례적 미팅으로 상호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김환배 위원)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박대신 후보자는 “추대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질의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열과 성을 다해 미래 동창회의 아젠다를 재설정해 생산적인 동창회로 거듭나겠다”고 답변했다.

제29대 총동창회장 재선임 박대신 회장

“총동창회관 건립 과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

지난 3월 30일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박대신 회장은 “모교 개교 115주년, 총동창회 창립 103주년, 총 동문 35만명 – 동문들의 숙원 사업인 총동창회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는 한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제 동문 한 분 한 분이 동국대학교의 상징이란 점을 인식해 적극 참여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일 때이다”라고 밝혔다.

80 · 90학번대로 임원 적극 충원

회비 납부자 3,000명 수준 견인

국내 및 해외 지부 활성화 독려

– 올해 총동창회의 역점 사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동창회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된 지부·지회는 계속 독려하고, 취약 지부·지회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짧고 활동적인 동문들이 나설 의향도 비치고 있습니다.”

박회장은 중앙 조직의 활력을 위해 80 · 90학번대를 임원으로 적극 충원할 방침이다. 70 · 80학번대에 머물지 않고 80 · 90학번대를 중심축으로 조직화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홈커밍데이를 본부동창회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외지부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휴스턴 등의 미주 지역의 경우는 이민휘 미주총연합회장이 활동할 때는 어느 대학 동창회보다 활성화되었는데, 이 총연합회장이 연세가 연만해서 활동력이 떨어져 침체기를 맞은 인상입니다. 이제 재충전해 다시 옛 전통이 나오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를 방문해 재조직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등의 동창회지부도 재건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 확보 복안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망인 ‘e제너두’ 와 ‘상록웰스’ 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행, 의료, 골프, 상조, 열차승차권, 항공 티켓과 일반 제품 등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우리 동문들에게 ‘착한 가격’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2%를 총동창회 수입으로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억의 기금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이런 시도는 전국 대학 동창회 중 동국대 총동창회가 첫 사례가 된다고 했다. 회비와 기금만으로는 동창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같이 자체 ‘사업 진화’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회비와 수익사업을 통해 5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박회장은 앞으로 회비 납부자는 2021년 2,000명, 2022년 3,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동국장학위원 모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국장학위원 모금 역시 1단계 10억원, 2단계 30억 원, 3단계 60억원, 4단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대면이 이루어지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밖에 발전기금 등 다양한 기부운동 참여 유도로 가치있는 일에 동문들이 참여해서 보람을 찾는 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정기총회에서 총동창회관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주인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총동창회는 오래전에 우리 35만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총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소유의 일정 공간 시설을 동창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동창회관 건물 인도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창회원들의 요구가 비등해 1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진행 과정을 보면, 200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동창회원들의 압박 때문에 해결해야 할 당위에 와있습니다.”

– 그렇다면 동창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학교법인에서 총무로 영상센터에 총동창회가 입주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있어도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회관 이전을 거부하는 등 기본 합의서 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창회와 모교, 법인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자는 모두 동국 발전의 핵심축입니다. 견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혼신하는 추진체로 인식해주었으면 합니다.

– 동문사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격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중간에서 막아왔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시설 공간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관금 24억여 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격해진 동문사회를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간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동문들이 주인, 동의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후배들은 미래의 동창회 자원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우리 동창회원입니다. 우리 모교는 만해 한용운 선사, 4.19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대학입니다. 모교 개교 115주년, 동창회 창립 103주년, 동문 35만의 전통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은 우리 대학만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배들에게 서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주역이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총동창회는 올해 60~100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배가시켜서 더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 대오에서 더욱 분발해 3대 사학의 옛 명성을 되찾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동문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우리 동창회는 동국대학교 출신이라는 학연으로 맺어진 조직입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찾는 곳이 동창회입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동창회가 발전하고, 모교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모교를 지원해 좋은 대학을 만든다면 우리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적극 참여해주시오. 서먹서먹하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동창회를 찾아주시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박회장은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과 같이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되자”는 것이 생활신조다. 박 회장은 부부와 딸 등 3부녀 동문이기도 하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신년 인사차 이사장 및 총장 예방



▲ 신년 인사차 이사장 성우스님(왼쪽 두번째)을 방문한 박대신 회장(오른쪽 두번째), 김환배 상임부회장(왼쪽), 임선기 사무총장(오른쪽)

신축년 새해를 맞아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월6일 오전 모교 법인 이사장 성우스님과 윤성이 총장을 차례로 예방, 덕담을 나눴다.

박대신 회장은 이사장 스님과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해는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에서도 학사운영을 매우 안정되고, 원활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에도 日新又曰新하여 모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총동창회도 모교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동문들의 힘을 모아 협력하여 상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이사장 성우스님은 “올해 구성원들에게 신년사에서 虎視牛步(호랑이처럼 살

피고 소처럼 성실하고 우직하게 걸으라)의 정진을 메시지로 전달했다. 동국대학 교가 건학 115주년을 자랑하는 명문사학에 걸맞도록 법인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모교는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구축, 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래사회와 학생들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창출하기 위해 ‘동국미래 포럼’을 출범시켰는데 그 성과를 지켜봐 달라.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국내 TOP 5 진입을 위해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하다.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 고문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



본회 고문 정
상영(법학56)
KCC 명예회장

이 1월30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
다. 향년 86세.

사망 소식을 접
한 박대신 총동
창회장을 비롯 송석구 고문, 원용선 고
문, 조희영 고문, 송석환 고문, 전영화 전
동창회장, 이재형 지도위원, 김환배 김오
현 임금동 상임부회장, 임선기 사무총장
과 많은 동문들이 2월1일 고인의 빈소인
현대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총동창회 카톡과 뱡드에
는 정 고문을 추모하는 댓글들이 넘쳐났
다.

박대신 회장은 “동국대에 정 고문 같은
동문이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빈 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총동창회 차
월에서 흥상을 제작해 명예의 전당에 헌
액함으로써 고인의 동국사랑의 깊은 뜻
을 영원히 잊도록 하겠다”고 애도했다.

정 고문은 1996년 개교90주년을 맞은
모교에 발전기금 5억원 후원을 시작으로
1999년 법과대 발전기금 3천만원, 2011
년 제2건학운동에 20억원을 기부해 화제
를 모았다.

후배들의 향학열을 북돋기 위해 2011
년 국가고시 합격생 및 준비생 격려금으로

로 1억원을 전했으며, 2012년 3월과 12
월에는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
하는 후배들에게 2억원을 기부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지난 2014년에는 118억원의 사재를
기부하여 동국대 고양캠퍼스에 ‘상영바
이오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당시 정 고
문은 “건물 이름을 ‘상영바이오관’이라
고 지은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해 달라는 의
미가 아니다”며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대학과 생명과학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의 많은 이들이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의
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동국발전에 기여한 공
로를 기려 2011년 12월 ‘동국인의 봄’ 행
사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
여했다.

한편 모교 동국대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교내 정각원, 법과대학
로비, 일산캠퍼스 3곳에 분향소와 조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추모영상을 제작해
상영했다.

▶ 254호(2020.12.30) 기사 정정합니다

2면 경남지부장학기금 기사중 박현정(수학
교육과), 송부용(농업경제학과), 김경현을 김경
현(전자공학01)으로 정정. 14면 경찰행정학과
장학금 기사 중 대성강업 ‘조원선’을 ‘조원선’
으로 정정.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동문들을 위한 복지몰을 오픈하여 동문들에게 우수상품과 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입학연도로 동문임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동창회 복지 쇼핑몰에 ‘동국가족’ 코너도 개설하여 동문기업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국가족’ 코너에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자 하시는 동문은 총동창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02-733-0302)

동국대 동창회 복지몰 주요서비스 안내

복지 쇼핑

오픈 마켓, 소셜보다 저렴한 최저가 쇼핑



-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브랜드 가전
- 24시간 특가, 출퇴근특가 등 타임세일

기차여행 할인

좌석지정



- 기차여행만들기 예약할인
- 최대 35% 할인

제네두 숙박

(전국400여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호텔, 리조트



- 비수기 최대70%, 성수기 10~15% 할인
- 주말예약 가능
- 파크로쉬 357,000→267,900원(25% 할인)

의료상담&명의추천

365일 24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 365일 24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 명의 추천 및 진료예약 대행

건강식품

인터넷 최저가 대비 20~50% 할인 혜택



- 국내 최대 건강식품 상품 운영
- 약 10만개 상품, 인터넷 최저가 보장

회원 가입안내!

1. 동국대 동창회 복지몰 앱설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여 앱설치



플레이스토어에서
‘동국대 동창회 복지몰’ 검색
(아이폰은 4월 후반 가능)

※ PC로 가입시 dgu.benecafe.co.kr

2. 앱설치 후 회원가입

STEP 1 신규회원 가입 버튼 터치



STEP 2 이름, 입학연도로 인증 후 회원 정보 입력



STEP 3 가입 완료 후 자동로그인 체크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동국인의 보람 느낀다”

코로나19 방역에 묶여 동국인의 밤 취소 … 연기 끝에 해를 넘겨 진행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이 1월15일과 1월20일로 각각 나뉘어 열렸다. 동국인상 시상은 지난해 12월10일 ‘동국인의 밤’에서 가질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신년하례회로 미뤄졌으며, 새해들어서도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져 이번에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동국인의 최대 명예인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은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주) 회장) 본회 고문이 선정돼 1월20일 동진기업 하이브로라운지에서 시상식

을 열어 축하패와 순금 행운의 열쇠를 수여했다.

부문별 시상은 1월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시상식에서 “동국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시어 평소에 동문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오신 송석환 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이를 대대외에 널리 알리고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작년 12월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대하게 시상식을 갖기로 준비하였으나 정부지침에 묶여 부득이 축소하게 되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

식되고 다시 활기 넘치는 일상에서 동문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하는 가운데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도약하는데 모두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번 시상식은 식전 행사로 총동창회가 새로운 100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액션플랜의 성과 영상들과 ‘언텍트시대에도 신박한 우리 동국대학교 동창회’ 응원메시지가 랜선 연출 방식으로 상영되었다.

한편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선정은 지난해 11월 30일 상훈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바 있다.

대상 수상자 |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



대상을 받은 송석환 고문은 수상소감에서 “나를 키워 준 모태는 동국이다. 동문이면 누구나 모교발전을 기원 하듯이 나 또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는데 ‘대상’을 받게되어 기쁘다. 오늘의 이 영광을 오래 간직하고 앞으로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해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문 |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



문선배 경제부문 수상자는 “오늘 수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 같다. 이 기쁨을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동문들과 함께 나누며, 동국인의 긍지를 꽂피우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동문은 1991년 회사를 설립해 신화 하니엘을 브랜드로 한 아파트 건설을 통해 국민주택 공급에 앞장서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동경장학회 이사장, 재단법인동국장학회 이사 등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솔선해오고 있다.

문선배 경제부문 수상자는 “오늘 수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 같다. 이 기쁨을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동문들과

문화예술부문 | 계타사 회주 혜담스님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월제 혜담스님은 “소승에게 큰 상을 주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고 고맙게 생각한다. 동국대학교와 인연이 있으니 이상

이 부끄럽지 않도록 고려불화 세계화와 동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혜담스님은 출가 후 40여년을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힘써왔다. 5m 크기의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 대표작 60여점을 세종문화회관과 루블박물관에 전시한 바 있다. 프랑스국립예술살롱전 명예훈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대상 명장부문상 등을 수상했다.

사회부문 | 이은정 前 경찰대학장



이은정 사회부문 수상자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며 오늘 이 있기까지는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컸음을 깊이 감사드린다. 동국인이 더 자랑스럽게 모교와 동창회가 발전하길 기원하며, 어디에 있던지 간에 동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동문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공로상 |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김환배 공로상 수상자는 “후배들의 장학금과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비대면사회 의 대안으로 복지로 탈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문, 동문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아름다운 동창회 문화, 후배들에게 안정된 재정기틀을 물려주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김환배 공로상 수상자는 “후배들의 장학금과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비대면사회 의 대안으로 복지로 탈서비스 제도를 도

단체상 | 김애주 여자총동창회장



단체상을 받은 여자총동창회 김애주 회장은 “졸업을 하고 나면 모교에 대한 향수와 애교심이 커지는 것 같다. 여자동문들의 이러한 모

교사랑 마음이 여자동창회의 존재가치를 키우는 원동력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여자동창회가 총동창회와 동반 발전하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28대 동창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개최

28대 총동창회 마지막(6차) 상임위원회가 3월17일 오후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총 위원 29명중 28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임선기 사무총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뒤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1호 안건 ‘2020년도 회무 및 결산 승인의 건’은 △ 일반회계 총수입 698,755,679원, 총지출 394,970,270 원, 차기 이월금 303,785,409원 △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 2,745,503,401원(모교와 공동명의 적립기금 2,390,740,365원 포함)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호 안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은 △ 일반회계 수입금 954,635,409원, 지출금 655,699,000원, 차기이월금 299,035,409원으로 책정된 원안을 의결했다. 사업계획으로는 △ 조직체계 정립으로 동문들의 역량 결집 △ 모교와 상생관계 구축 등의 6대 핵심사업 추진을 심의했다.

제3호 안건은 ‘동창회관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청

구 소송 주인의 건’으로서 학교법인동국대학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4호 안건 ‘회장 및 감사 선출 보고 건’은 강병국 추대위원장이 차기 임원 선임 활동을 보고했다.

4.19혁명 61주년 공식행사 취소

올해 4.19혁명 제61주년 주도식은 4.19혁명동지회와 학교당국,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4월16일 오전 11시 수유리 국립4.19민주혁명묘지 사월학생혁명기념탑앞에서 갖는다. 4.19혁명동지회 라동영 회장과 회원, 모교박광현 교무학생처장 최호진 교무학생팀장, 강성우 총학생회장 및 간부들이 참석해 현화 분향한다.

한편 4월19일 당일에는 오전 11시 모교 만해동산에 세워진 동우탑앞 현화 등으로 추모행사를 대신한다.

4.19혁명동지회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참배하게 되며 공식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6.3 희생자 김중배 동문 추모

6.3 한일회담 반대투쟁 희생자 김중배동문을 기리는 추모 모임이 4월15일 오전 11시 모교 동우탑앞에서 동문 및 지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추모식은 김중배 동문이 재학한 농학과와 농어촌연구회 구농동우회 활동을 한 권오갑 동문 중심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동우탑에서 추도식을 가진 뒤 일부는 이천민주화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묘소를 찾아 현화, 참배 할 것으로 알려졌다.

ROTC, 故 김범수 대위 추념식

ROTC동문회(회장 윤재민)는 2월18일 오전 ROTC 40기 故 김범수(경영98) 대위 산화 17주기를 맞아 모교 만해동산에 있는 흥상앞에서 간단한 추념식을 갖고 고인의 위국헌신·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별도로 동우탑 옆 흥상앞에서 현화와 묵념으로 추모했다.

2021년 입학식 온라인으로 진행

총장과 신입생간 화상대화 가져



모교(총장 윤성이)는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2월22일 본관 중강당에서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거행됐다.

입학식은 LED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환영사, 치사, 축사, 동문 축하 영상메시지, 총장과 신입생들의 화상 대화,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사전 신청한 1000여명의 학생 중 100명이 Zoom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000여명의 신입생들은 동국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했다.

윤성이 총장은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동국대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가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도록 동국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캠퍼스는 2월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연 2021학년도 입학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대학 측은 경주캠퍼스 설립 43주년을 기념해 입학식장(백주년기념관)에 사전 신청을 한 신입생 43명만 참석하도록 했다.

이영경 경주캠퍼스총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수험생활을 잘 이겨낸 학생들의 인내와 의지에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전문적인 지식과 좋은 인성을 갖추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모교 학위과정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높은 국제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2월 교육부와 법무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28일까지 2년 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상한 부여 ▲정부초청장학생(GKS) 유치 시 가점 부여 ▲대외 홍보 마케팅 강화 등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제화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국제화역량에 대한 종합적 심사 및 인증, 유학생의 선발

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영역별로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불법체류율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의료보험 가입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등이다.

모교는 특히 정성평가로 진행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부분에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인 '글로벌인재트랙(Dongguk Global Leaders Track)'을 개발·운영한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모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일반분야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월26일 발표했다.

예비 창업패키지는 유망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지원과 함께 멘토링, 창업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교는 예비창업자 30개 팀을 선발해 팀당 5,1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창업 전

담 멘토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8.6억원이다.

2011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최초 선정된 이후 동국대는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창업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환되어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불교성전' 재개정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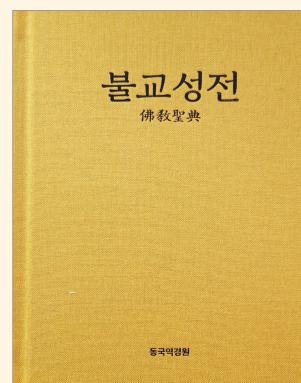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대장경의 진수'

모교는 3월4일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성전' 재개정판 출판 봉정식을 봉행했다.

새로 펴낸 '불교성전'은 지난 1972년에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간한 한글본을 재편한 것이다.

윤성이 총장은 "불교성전"은 팔만대장경의 축약본으로, 한 권으로 읽는 한글 팔만대장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한문 번역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정비해 초판 발간 후 50여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교성전' 출판을 담당한 동국대 역경원장 혜거 스님은 "기존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일반 독자를 위한 '읽는 재미' 보강에 주력했다"며 "위대한 성



인의 말씀이, 인류의 스승의 말씀이, 보다 쉽고 간결하고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단과 학계, 출판계의 여러 번역본을 참조하여 누구라도 더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글본'을 지향

한 이번 '불교성전'은 동국대학교 윤재웅 교수(국어교육학과)가 윤문했다.

재개정판은 부처님의 생애, 초기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어록 등 불교의 핵심 내용과 생활 속에서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모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불교정신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고 견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성전'과 함께 '불교입문' 등 책 2권을 선물했다.

8개 대학과 공동강의 개설

4차산업시대 교육매체 혁명에 선제적 대응

모교는 광운대, 덕성여대, 명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포항공대(이하 가나다 순) 등 8개 대학과 공동강의를 개설했다.

김영민 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도래한 온라인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시대의 교육매체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아우르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공유 패러다임의 첫 실천 사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해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강하

고, 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공동개발하는 공유협력 대학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학기에는 9개 대학 22명의 교수들이 <교과서 밖의 심리학> <글로벌 위기 시대의 한국과 세계정치> <폐기물 처리공학> <자연과학의 융합적 이해> 등 4개를 온라인 과목으로 공동 개발·운영한다. 모교는 4개 과목에 모두 참여했으며, 약 1천 여 명의 학생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유협력대학은 2학기 개설 과목을 준비 중이다. 2학기부터는 삼명대와 한동대 등도 추가로 참여, 총 11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상안전학과' 신설

농구부 감독 이호근 동문



모교 대학스포츠실 농구부 신임감독에 이호근(경영84, 前 여자농구 삼성생명농구단 감독)동문이 1월1일자로 부임했다.

1998년 여자농구 신세계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 감독은 2006년 동국대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생명 사령탑에 앉았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대표팀 코치, 2012년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여자 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모교 경찰사법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비상안전학과가 신설되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9명이었다. 현재 정부에서 600여 명의 비상안전계획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에는 비상안전계획관 직무와 관련한 학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상황에 필요한 비상 분야와 재난관리 분야를 융합한 위기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군 생활 중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비상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잠재역량 평가에 도움을 받는다.

2020년 순수취업율 69% 달성

유지취업율은 89.4%로 주요대학 중 7위

모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순수취업율 6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 상승한 수치다.

순수취업율은 수도권 주요대학 중 9위에 해당한다. 성균관대가 78.6%로 1위를 차지했고, 한양대(73.8%)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서강대(73.7%) 고려대(73.3%) 연세대(72.5%) 중앙대(72.4%) 서울대(70.9%) 인하대(70%) 동국대(69%) 경희대(67.4%) 건국대(65.8%) 흥익대(65.3%) 한국외대(65.2%) 이화여대(63.4%) 숙명여대(62.5%) 순이었다.

모교는 유지취업율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 취업의 '양과 질' 모두 우수함을 입증했다. 유지취업율은 취업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지를 조사하는 지표다.

2020년 우리대학 유지취업율은 전년 대비 2%가 오른 89.4%로, 주요대학 중 7위에 올랐다. 1위는 서강대(93.3%)였고, 성균관대(92.7%)와 고려대(91.9%)가 뒤를 이었다. 다음은 한양대(91%) 연세대(90.6%) 서울대(90.4%) 동국대(89.4%) 인하대(88.8%) 중앙대(88.5%) 흥익대(88.2%) 건국대(87.7%) 한국외대(85.9%) 경희대(85.4%) 이화여대(84%) 숙명여대(81.4%) 순이었다.

서울·경주 교수 9명 정년퇴임

모교에서 후진양성과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교수 9명이 2월28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캠퍼스별로는 서울캠퍼스 7명, 경주캠퍼스 2명이다. 퇴직 교수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교 명예교수로 위촉된다.

이번에 퇴임한 서울캠퍼스 교원은 △불교학부 박인성(2001.9.1. 부임, 불교문화연구원장 역임) △영어영문학부 황훈성(1993.3.1. 부임, 문과대학장 역임) △경영학과 유석천(1995.3.1. 부임, 기획처장·경영대학장 역임) △경영정보학과

이영재(1991.9.1. 부임, 경영정보학과장 역임) △건설환경공학과 장연수(1993.3.1. 부임, 공과대학장 역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이호용(1993.3.1. 부임, 정보관리실장 역임) △건축공학부 김봉건(2017.9.1. 부임, 박물관장 역임) 교수이다.

경주캠퍼스는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하동현(1985.3.1. 부임, 관광대학장 역임) △한국음악과 윤소희(1996.3.1. 부임, 예술문화진흥연구소장 역임) 교수가 퇴임했다.

올해 의사국가시험 100% 합격

모교 의과대학은 2월22일 발표된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실기)에서 응시생 42명 전원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의과대학은 매년 의사국가고시에서 전국 상위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을 획득해 명문 의학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대학발전기금 동문·불자 앞장

■ 로터스관 건립기금

△전순표(농학53, (주)세스코 회장) = 1억원(2020.12.31.)
△김주영(정외60, 前 서울시 공무원) = 1억원(3월10일)
△83학번동기회(회장 김창호) = 1천만원(3월16일)

■ 장학금

△(주)인서정공(부산 선박엔진 부품제조업체) = 6억원(1월14일)
△전병천·김정숙 불자 부부(농업) = 2억원(2020.12.28.)
△최진식(무역77 (주)심팩 회장) = 7천3백만원(2020.12.23.)
△현진스님(승가73,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 1천5백만원(3월24일)
△경주 가정교육과 협직교사 동문회(회장 이인정) 동경가선장학기금 = 1천2백만원(2월25일)
△법타스님(인철67, 은해사 조실) = 1천만원(3월24일)
△김성규(영문04, 모교 문화학술원 교수) = 1천만원(3월10일)
△서현민(산업시스템공학12, (주)글로벌 오더 대표 이사) = 1천만원

(2020.12.17.)

△ 84학번동기회(회장 김정우) = 1천만원(2020.12.30.)
△ 이민식(불교학부) = 1백만원(2월15일)

■ 특정목적기금

△지선스님·호명스님(전국비구니회 해인사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 = 3억원(2020.12.10.) 경주캠퍼스 1억5천만원, 경주병원 1억5천만원
△이창규(경영61, DK메디컬솔루션 회장) = 1억원(1월20일) 로터스관 건립 및 경영학과장학금
△월서스님(법주사 조실) = 1억원(2020.12.28.) 동국대 일산병원 발전기금
△성우스님(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 = 5천만원(2월9일) 학교법인 발전기금
△원명스님(봉은사 주지,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 = 5천만원(1월19일) 학교법인 발전기금
△진명스님(선학92, 모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 1천만원(3월16일)

간호사 국가고시 75명 전원 합격

경주캠퍼스 간호학과가 2월15일 발표된 2021년도 제61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75명 전원이 합격했다. 지난해도 100% 합격률을 나타내는 등 전국 최고 명문학과로서의 자부심을 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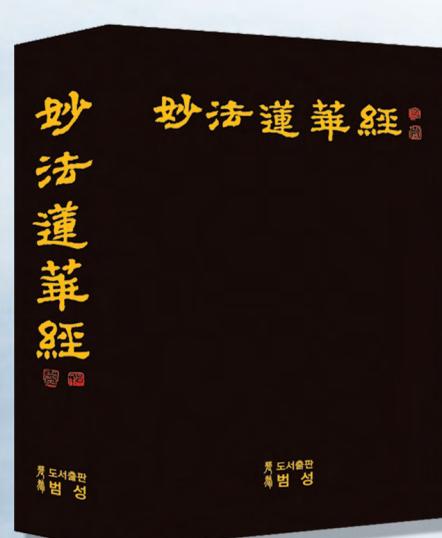
간호학과는 1997년 경북도내 첫 4년

제 학과로 개설됐으며, 최근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학생들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거듭나 전국 유수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보건소 등에 취업하고 있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1200쪽 / 70,000원
불교서점 및 인터넷에서 판매중입니다.

2년여 작업 끝에 관음종의 근본 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법화경)"을 번역해 풀이한 책을 출간.
신라시대 원효대사부터 조선시대 김시습에 이르기까지 선지식들이 내놓은 해설과 일본 중국의 책을 참고.

각 품(品)의 말미에 주석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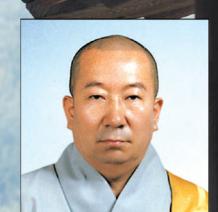
화제의 책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마지막 시기 설법한 것으로

모든 경전의 사상과 흐름을 나침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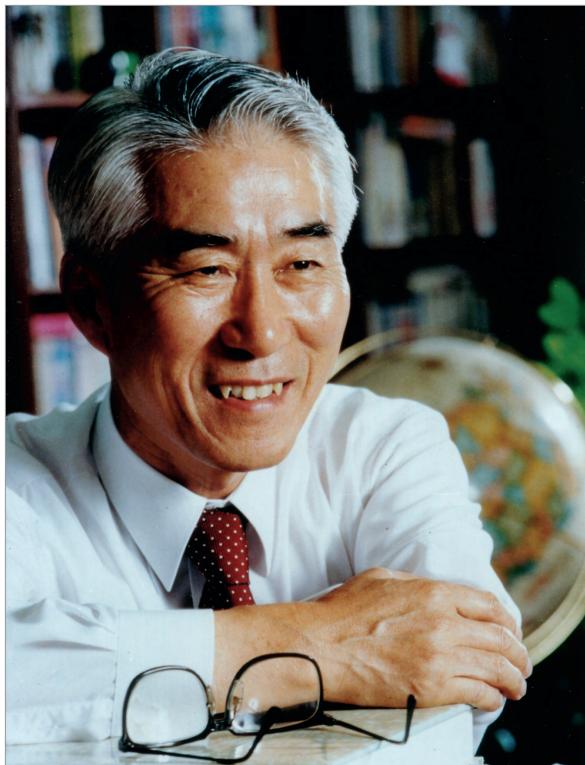
안내하며 찾아갑니다.



본회 고문 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한국 출판계의 거두 윤형두 (주)범우사 회장

출판사 정점 비결 “필진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관리”



**책이 좋아 책 출판에 평생 바쳐
창립 55주년... 펴낸 책 5천 여종
각 대학원에서 출판 관련 강의**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윤형두 회장(법학과 55학번)을 만나기 위해 파주시 출판단지의 종합출판 범우(주)를 방문하는데, 4층 드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먼저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들과 수인사를 나누는 광경을 맨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중절모를 쓰고 마스크를 한 장년의 풍모다.

회장실이 별도로 갖춰진 것이 아니고, 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오픈된 사무실의 한켠이 회장실이다.

윤 회장은 권위의식이란 것이 없어보였다. 근엄함과는 거리가 먼 자상하고 편안한 인상이다. 이런 품성이 대한민국의 ‘지성 인맥’을 형성해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보았다. 피천득 차범석 리영희 송건호 남재희 김태길 김동길 김상현 한승현 한완상 장을병 구상 이병주 김지하 김병익 이정준 임현영 조정래... 대통령에서부터 정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학인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역들이 범우(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폭넓은 인맥 관리와 품넓은 도량에서 나온 힘이었다고 평가된다.

범우사는 1966년 창립돼 올해로 55주년이 된다. 이름은 ‘범우(주)’로 바꾸었을 뿐, 변함없이 묵묵히 단행본 출판 외길을 걸어왔다. 범우사는 70년대 단행본 전성시대 민음사, 문예출판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출판사의 하나로 우뚝 섰다. 그러나 범우(주)를 제외하고 두 출판사는 열악한 출판시장과 함께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범우(주)만이 옛 명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윤 회장을 두고 그의 오랜 벗인 한승현 전 감사원장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는 끈질긴 집념과 바다와 같은 도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는데, 바로 그 점 때문

이 아닐까.

“범우(주)는 반짝 하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 출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대체로 한꺼번에 고기를 잡는, 이른바 베스트셀러를 노리는 투망식 출판을 고려하는데 우리는 묘목을 심어서 열매를 따는 ‘과수식 출판’, 역사의식을 갖는 기념비적 ‘비석식 출판’을 지향합니다. 조그만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책을 만들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100종 이상의 책들이 꾸준히 나가 출판 불황이라는 요즘에도 경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범우사 창립 55년 동안 펴낸 책만 자그마치 5000여 종(種)에 이른다. 1년에 거의 100권에 가까운 책을 55년동안 꾸준히 펴냈다는 계산이다. 범우고전선, 범우사상선서, 범우세계문학선, 사르비아문고, 범우문고, 피닉스문고, 에세이문고, 소설문고, 범우인문·사회과학서.... 이런 책 중에는 ‘한국의 고지도’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돈황’ 등 병풍만한 책도 있다. 잘 팔리지 않지만 ‘비석을 세운다’라는 이름 아래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행한 저작물들이다.

– 펴낸 책들 중 대표적인 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우문고지요. 지금까지 326권이 나왔는데, 피천득 선생의 ‘수필’,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부터 시작한 문고입니다. 독서의 생활화와 양질의 책을 보급하기 위해 문학·사상·철학·고전·역사·학술 분야를 망라한 종합 교양문고지요.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푹넓게, 그러면서도 깊이있게 교양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범우문고 가격은 3900원에서 4900원 사이다. 말 그대로 커피 한잔 값이다. 일본열도를 독서 열풍으로 몰아온 ‘이와나미 문고’에 필적할 문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필자 역시 ‘범우문고 세대’다. 범우문고를 통해 시대를 고민하고, 내일을 예비하며, 아망을 꿈꾸었다. 70년대 초반부터 나온 ‘범우문고’는 젊은이들에게 지적갈증을 충족시켜준 책들로 평가받아 왔다.

–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세태 탓보다 학교에 사서 교사가 없다는 것이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본에는 각 학교마다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사서 교사가 일부 파견되지만 기간제 교사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이지요.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교에도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국어 교사가 사서 교사를 겸하고 있는데, 입시 교육에 치중하는 그들이 올바로 독서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대입을 위해 기계적으로 달달 외는 독서법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적 깊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지론이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강조한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셨지요. 이런 높은 문화의 힘과 소양은 책에서 나옵니다.”

올곧은 역사관, 꽃꽂한 자세, 낙관주의적 사고가 80대 ‘노인의 전형성’을 단호히 배격하는 모습이다. 산을 좋아하고, 또렷한 기억력과 훈계식이 아닌 설득력있는 화

술도 노인의 범주를 벗어나게 한다.

–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옳은 일을 할 때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물려서면 길이 쉽고 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는 점을 책을 통해 배우며,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빛나는 지성을 갖추고, 시대를 선구했던 사람들이 변절하여 노후가 쓸쓸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동아일보 주필을 지냈던 천관우 선생, 김동길 교수, 김지하 시인... 긴 이야기는 생략했지만 그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윤 회장이 출판문화협회장으로 있을 때 도서전시전을 열었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다. 아버지가 그를 감옥에 보냈는데, 그는 개의치 않고 딸을 안내하며 격의없이 대화를 나눴다.

윤 회장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국출판조합협동조합 이사장 등 출판 관련 대표를 두루 역임했지만, 맡은 단체마다 흑자를 내고 나온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수필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1972년 ‘수필 문학’을 통해 문단 데뷔한 이래, ‘넓고 넓은 바닷가에’ ‘책의 길 나의 길’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바다’ 등 20여 권의 수필집과 출판 관련 저서를 펴냈다. 이중 ‘넓고 넓은 바닷가에’와 ‘자화상’은 5판을 찍어냈다.

윤 회장은 매년 15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범우장학재단’을 30년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모교와 지역사회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한 것을 비롯 국립 순천대에 장서 20,000권을 기증한 바도 있다.

윤 회장은 모교 언론정보대학원 출강과 함께 연세대·서강대·중앙대·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로 출강했다. 순천대에서 명예 출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 회장의 장남 재민 씨가 대를 이어 범우(주) 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윤 사장 또한 동국 가족(81학번 사학과)이다. 현재 ROTC 동기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펴고 있다.

〈이계홍 국문65·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형두 회장, 이계홍 편집위원장, 신관호 회장특보, 윤재민 범우사 대표, 윤길한 범우장학회 상임이사)

(주)유민에스티 대표이사 김동환 동문

세계 최초 필름형 액체 감지센서 개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필름형 액체 감지센서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방재 분야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형 기업.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회사지?”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먹거리 최첨단 산업이다. 바로 (주)유민에스티다. 유민에스티는 130여건의 특허 및 인증을 가지고 있는 센서 신소재 기업이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가 모교 행정대학원 03학번 김동환 대표이사이다.

130여 건 특허 및 인증 강소기업

아마존 등록 국내 유일 누액센서 기술

뼛속까지 스민 독실한 불자 기업인

그를 만나기 위해 1호선을 타고 안양역 다음 명학역에 내렸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다. 명학역에 내리자 김 사장이 직접 취재진을 맞았다. 명학역에서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유민에스티 공장 겸 사무실이 있다. 5층 건물 2층엔 공장이 있고, 3층엔 여러 가지 실험도구가 갖춰진 실험실과 R&D 연구실이 있다.

4층으로 들어서자 회사원 사무실과 대표이사실이 있다. 김동환 사장은 대단히 활동적인 모습이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고, 이해도가 부족하면 팝플릿을 가져와 열정적으로 소개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 유민에스티는 어떤 회사, 무슨 제품을 생산합니까.

“우리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센서 강국으로 발전시킨 토대를 마련한 회사입니다.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을 다 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콜타르, 카드뮴, 이런 물질을 필름으로 잡아내는 것이지요.”

유민에스티는 15년 이상 검증이 된 센서를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강소기술 기업이다. 이 기술로 센서 오작동을 99.9% 잡아내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품을 인증받았다.

– 고객사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유민에스티는 삼성전자 반올림 사건 방재에 기여한 기업입니다. 반도체의 오작동을 필름 하나로 잡아내는 것이지요. 물방울 같은 작은 물질이라도 회로에 들어가서 작동을 방해하면 엄청난 손해가 되지요. 이전의 케이블로 잡아내는 기술은 초미세 물질을 잡아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회사 제품의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는 99.9% 잡아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와 포스코, 발전소 등에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쟁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단연 기술력이죠. 우리는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케미칼과 유기용제에만 반응하는, 즉 케미칼 센서 및 오일 감지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및 인증을 130여 개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독보적 필름센서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개발해 신제품 인증을 2009년과 2020년 두 차례나 받았다고 한다.

김 사장은 세계 시장성이 무한대로 열려있다고 말한다. 불산, 황산 등 화학 제품을 공장마다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오류가 자주 나오는 종전의 케이블 감지센서 보다 오류가 거의 없는 필름형 감지센서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오는 일이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퇴근도 정해진 시간이 없다. 제품 하나하나가 새롭게 탄생될 때의 보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스스로 애국자라는 생각을 한다.

경영철학을 물었더니 △국가 △국민 △가족 △‘나’라고 하는 순서를 말한다. 철두철미 공공성과 공익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기술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중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는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필름형 감지 센서 시장은 세계적으로 수조에 달할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2,000억~3,000억 정도 되겠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높으니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가 고향인 김 사장은 모교 경주캠퍼스에 대한 애정도 크다. 그의 딸(김연주)도 경주캠퍼스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경주캠퍼스를 교육도시, 과학도시(산업벤처도시) 관광·역사도시로 나가는 데 모교 경주캠퍼스가 그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경주 법흥사가 놀이터였을 만큼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다. 그래서 그는 뱃속까지 스며든 독실한 불자다. 부인 양관용 여사(57)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이계홍 국문65·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김동환 대표이사가 사무실 앞 벽을 가득 메운 130여 건의 특허 및 인증서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전국 대학 최초 도입

총동창회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회원관리 전산화작업이었다. 1991년 8월 기존의 K8086 컴퓨터를 286급 신형 컴퓨터로 교체하면서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전체 회원들의 성명·학과·졸업년도 등의 색인, 회비관리, 주소, 연락처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신규 회원 관리에도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은 당시 재학생이던 고준(전산84, 前 포항제철 데이터 p실) 등 문이 후배들과 함께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동창 사회에서 만든 최초의 시도로서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동창회 등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총동창회 역사 (3)

또 다른 변화는 재정 확충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었다. 각종 회비 납부율이 저조해 동창회 장학사업이나 사무처 운영비용을 몇몇 임원들한테 의존해왔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분담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 운영위원회로는 회장단과 상무이사, 이사가운데 1차(1989.11)로 정재철 문태식 유근창 남상룡 박진희 조휘성 김성섭 황용운 안채란 김동정 송보열 혀문수 류주형 이종호 평복창 이석룡 정상영 남평우 김명선 김동영 김재기 김제국 이세무 박준형 원용선 최철종 이화일 추동현 정현화 이종기 이기빈 남기일(간사)동문이 참여했다. 이어서 장형식 최형우 이긍규 권노갑 정관용 김형성 정재호 흥순지 흥봉래 이연택 윤부성 김해수 전순표 동문 등이 차례로 참여해 각 100만 원 이상씩의 운영기금을 내놓았다. 이 기금은 현재의 백상빌딩 301호 매입자금이 되었다. 이와함께 임원수를 상무이사 100인이내, 이사 500인 이내로 대폭 늘려 자립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황명수 회장 취임, 모교에 버스 1대 기증

[1993년] 제17대 회장에 황명수(정치49) 국회의원(4선)이 정재철 회장 뒤를 이어 6월15일 선출되었으며, 7월 14일 취임식을 가졌다. 수석부회장엔 류주형(농학53), 상임부회장에 박익주(정치59), 감사에 권석충(정치63) 이철홍(법학64) 박수천(행정66)동문이 각각 선임되었다.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며 사무처 직원도 사무국장에 김영환(정외63), 총무에 정연도(조경83)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황 회장은 취임기념으로 모교에 35인승 버스 1대를 기증하고, 서울 및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에 앰프1대(대당 660만원)씩을 선물했다. 10월24일



▲ 17~18대 황명수 회장

제10회 영남지역체육대회가 경주캠퍼스에서 영호남 동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23일엔 호남동문 초청 체육대회 전야제가 ‘영호남 화합의 한 마당’을 기치로 대구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1994년부터는 ‘동창회장 은배쟁탈 영남동문 친선체육대회’에서 대회 명칭을 ‘제11회 동국인 체육대회’로 바꾸고 대회 규모를 전국대회로 격상시켰다.

11월4일 모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후원회가 총동창회, 모교당국, 학교재단, 종단 등을 종망라하여 거교적 기구로 결성됐다. 후원회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 동국학술문화관과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기금 모금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11월5일 “대동국의 발전이 한국불교의 발전입니다”라는 타이틀아래 동창회보, 동대신문, 불교계 신문 등에 1천명이 넘는 임원명단이 공고됐다. 임원은 명예회장 민병천 모교 총장, 회장 황명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고문, 부회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지도위원, 감사 등으로 종단, 재단, 학교, 동창회 임직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실무를 맡을 사무국장으로는 모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신관호 사업부장이 맡았다.

12월17일 제22회 동국인의 밤에서는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 애베레스트 무산소 등정한 박영석 동문에게 제6회 동국문화대상을 시상했으며, 축하패 15명, 특별공로패 3명, 공로패 14명, 재직기념패 2명에게 각각 해당 상패를 수여했다.

[1994년] 4월16일 본회 회장단·모교 교무위원 연석 간담회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고 동국발전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을 다짐했다. 6월4일에는 모교 퇴임 및 원로교

수를 초청해 모교 재직중 노고를 치하하며 “대학발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년퇴임 교수들의 모임 필요성이 대두되어 훗날 명예교수회를 발족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학기금 마련 창극 ‘하늘에 편 녹두꽃’ 공연

7월16일 동창회 장학재단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창극 ‘하늘에 편 녹두꽃’이 5일간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동국극단 창립공연이기도 한 이 공연은 총동창회가 최초로 시행하는 수익성 이벤트로 KBS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주)대우 현대자동차(주) (주)유공 대한항공 상아제약 한화그룹 신도리코 등의 기업이 협찬했다. 이 공연으로 장학기금 2억3천만원을 마련하는 동창회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였다.

제1회 동국인골프대회가 10월23일 경주 조선CC에서 1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가 서울 부산 대구 포항 대전 충북 경주직할동창회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 모교재직동문회 동문 5백여명 참석리에 경주조선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재단법인동우장학회 설립 허가

[1995년] 2월5일 회원 10만명을 수록한 ‘동국인명록 제7집’을 제작·배포했다. 2월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설립허가서(제1~497호)를 발급받아 3월15일 법인 등기, 4월11일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현판식을 거쳐 9월22일 재학생 12명에게 각 100만원, 고시 장학금 500만원 등 첫 장학금 1천7백만원을 수여했다. 출범당시 동우장학회 재산은 기본자산 3억3천153만552원이었다.

6월2일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황명수 회장이 연임됐다. 감사에는 이철홍 권석충 유영수 동문

부여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남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UNESCO World Heritage City

백제 고도

동우장학회 출범으로 후배 장학사업 안정적 운영



▲ 황명수 회장이 동우장학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남가주총동문회 정기모임.



▲ 모교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

을 선출했다. 7월13일 총회 위임을 받아 선임된 임원 추대식에서는 고문12명, 지도위원 21명, 부회장 52명, 감사 3명, 운영위원 64명, 분과위원장 6명, 상무이사 168명, 이사 65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6월27일 실시된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규상 송달용 김선흥 이정규 김원창 권상국 전광순 오규석 이배영 김일수 설송웅 동문 등 11명이 구청장·시장·군수 등으로 당선됐다.

6월2일 사무처 조직의 책임자 호칭을 사무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개칭했다. 2월14일 사무처 간사에 최현희 동문을, 10월16일 이상호 동문을 각각 임용했다.

재정 확충위해 년회비와 임원회비 현실화

[1996년] 4월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노갑 김기재 김영구 김일운 남평우 박상규 신영균 윤철상 이긍규 이원범 임인배 정재철 최형우 황규선 동문 등 14명이 당선돼 5월9일 롯데호텔에서 정기 이사회 겸 축하연을 열어 동국의 정치파워를 과시했다. 이사회에서는 회비 인상안을 상정해 고문단·부회장·운영위원·분과위원장·감사 1백만원 이상, 지도위원 30만원, 상무이사 20만원은 종전대로 두고, 이사회회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회비는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확정해 동창회 재정 안정을 도모했다.

모교는 개교 90주년기념 행사로 5월7일 대운동장에

서 KBS열린음악회를 열어 동국가족간 화합과 특히 동문들에게 애교심 발로의 동기를 부여했다. 이 여세를 몰아 동문출신 송석구 총장은 '비전! 동국100년' 청사진을 제시하고 후원의 밤 행사를 서울은 5월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주는 12월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하여 서울 70억, 경주 53억여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근래없는 성과를 올렸다. 그만큼 동문들의 모교 발전 의지가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7월10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신돌영 동문이 임명됐다.

경주직할동창회 사무실 개소

[1997년] 5월28일 제19차 정기총회에서 18대 황명수 회장이 다시 19대 회장으로 추대(3선)됐다. 유영수 이철홍 권석충 감사는 18대에 이어 19대 감사로 유임됐다. 사무처는 처장에 지찬경, 간사 최현희, 편집장 이상호 동문으로 개편됐다. 7월2일 직할 경주동창회는 시내 동천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덕수 경주 회장과 송석구 모교총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짐으로써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미주지역 제1회 모교 총장배골프대회가 7월4일부터 6일까지 Bay 시티에 있는 Bay valley 리조트호텔 CC에서 열렸다. 뉴욕 LA 워싱턴DC 텍사스 토토 디트로이트 서울 등 7개도시 동문들이 참가해 동국인의 우정과

자부심을 함양했다. 대회가 끝난뒤 준비위원회 형태를 공식적으로 미주동문골프대회로 정하고 초대회장에 이태근, 수석부회장 배시영, 부회장 차경훈 정관풍 강충현 김경재 이종철동문으로 회장단을 구성했다.

회장단 북미주동문회 격려 방문

[1998년] 2월6~8일 총동창회 황명수 회장, 모교 송석구 총장을 비롯 한국 본부 및 모교 간부 등 27명이 북미주동창회(회장 이태근)를 방문해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동국은 하나"임을 교감하며 미주 동문들과 동국인의 자부심을 공유했다. 미주 동문회는 이민희 고문, 배시영 수석부회장, 곽병희 사무총장 등 13개지역 동창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6일 전 야제(Radison Wilshire Plaza호텔) 7일 만찬(Palm Spring) 8일 정기총회(Seoul Grand 호텔)가 이어졌다. 황명수 회장은 서울에서 제작한 북미주동창회 회기를 전달하며 북미주동창회의 활성화를 격려했다.

6월4일 제2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인 강원도지사에 김진선(행정71) 동문, 기초단체장 14명, 지방의회 의원 85명 당선으로 동국인의 정치파워가 빛을 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이규상 송달용 김행기 김선흥 김원창 김일수 최규환 이배영 한영식 이채익 최현돌 백정수 조승수 성장현 동문이 뽑혔다.

〈신판호·동창회보 편집주간〉



(주) 전 테 크
Jeon Tech. Co., Ltd.

"협기성 폐수처리(UASB/EGSB), 증발농축기(HEATPUMP/MVR), 방사성 폐기물/폐수처리"

대표이사

전 윤 중
(전기공학과 79)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 연구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 송산빌딩 5층
TEL. 031-257-6961(代) (내선 100) FAX. 031-257-6968

공장 : (2782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319
TEL. 043-533-6965 FAX. 043-533-6965

E - Mail. yjeon@jtech.co.kr (개인) / JTC0411@chol.com(회사)
Home Page. www.jte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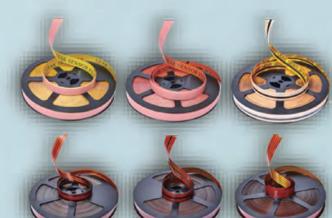
YUMIN (주)유민에쓰티

세계 최초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

연구개발·제조·판매·시공·A/S

대표이사

김 동 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35-29 경기빌딩 2~3층

T. 031-429-6873 F. 031-429-6874



나 같은 공기청정기 처음이죠?

UV 플러스 안심 살균으로
위생개념 철저

안전한 Air

무풍 청정으로
직바람,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한 Air

5way 흡입 3way 토출로
빼짐없이 구석구석

강력한 Air

크기, 컬러, 패턴
그리고 청정 성능까지

맞추는 Air

우리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Air**

BESPOKE 큐브™ Air

* 살균 기능은 모델마다 상이함(UV 플러스 안심 살균은 딥그린, 그레이 한정)

가전을 나답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중단없는 자비실천

안아주는 절 · 행복도량 원법사



▲ 제 16회 장학금 수여식 (2021. 04. 04)

2008년 설립 이후 2억 1천 4백 3십만원 장학금 지급
장학생 418명 배출



▲ 추석맞이 자비의 쌀 나눔 (2020. 09. 14)

2008년 이후 14년째 이어온 '자비의 쌀 나눔'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그들의 꿈을 지지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 농협 355-0034-7103-53 원법사장학회 (1구좌 1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65길 9 | TEL. 054-244-0108

문선배 (경영75) 신화종합건설 회장

“원정과 하청은 공생관계 … 신뢰 쌓아야 원원”

30대 후반 건설업체 설립

부울경 동종업계 대표 부상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박차

3월25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주)신화종합건설의 문선배(경영75) 회장은 1991년 30대 후반의 나이로 회사를 창립한 뒤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문 회장은 2000년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신화하니엘’로 통일하고 부산과 경남 창원, 울산의 주택시장을 공략하면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고, 신화종합건설은 명실상부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문 회장은 “30년을 돌아보니 특별히 어려웠거나 좋았던 일보다 항상 꾸준하고 묵묵하게 일한 장면만 기억에 남는다. 평소 성실함과 평범, 끈기를 소신으로 삼아온 터라 이를 토대로 회사도 경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설업을 하면서도 항상 분수에 맞거나 그릇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신념 아래 사업을 절



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의 수준에 맞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며 “그래서인지 (회사가) 크게 잘 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사정이) 크게 나빴거나 위태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웃었다.

문 회장은 “이렇게 안전하게 경영을 해야만 민밀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미분양 사태가 나더라도 함께 시공에 나섰던 하청업체에 자금을 줄 수 있다”며 “원정과

하청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한 공생 관계로, 하청업체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정이 되지 말자고 직원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에서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상생협력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쓸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쏟는다. 문 회장이 건설업 대표

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일일 명예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것도, 이 같은 경영 소신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출신인 문 회장은 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동국대를 졸업했다. 현재 모교의 전국동창회 상임부회장 및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와 함께 부산CC 이사도 맡고 있다. 특히 70여 명의 신화종합건설 임직원 가운데 20년 인팎의 근무 경력자가 많다. 오랜 기간 업무를 함께한 임직원을 믿고 중용한다는 문 회장의 소신 때문이다. 문 회장은 또 현재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11층짜리 신화빌딩 사옥의 건물 임대료도 준공 이후 10년 이상 동결했다.

문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창립 30주년이지만 기념식을 직원들과 조촐하고 무탈하게 진행하겠다”며 “앞으로의 30년도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위한 경영에 매진하면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국제신문 3월23일자 계재)

동문칼럼 | 김용태 (사회85)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피노키오의 코**

사람은 하루 평균 3번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할까? 자료를 찾아보니 연구결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는 인간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거짓말은 일상을 반영하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Knives out)’에서 여주인공은 거짓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토해 버린다. ‘정직한 후보’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여성 국회의원이 할머니의 소원대로 진실만을 말하게 되면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 장면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의 변주(變奏)이다.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거짓말 탐지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거짓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말이다. 지금 지구촌에 거짓말과 가짜가 난무하고 있기에 이런 상상을 해봤다. 세계적인 코로나 19 유행 속에서 자

선 사업을 열심히 하는 빌 게이츠 부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느니, 코로나 19는 인구조절용 화학무기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음모론이 퍼졌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정보의 고속도로인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진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은 이를 사실처럼 믿게 된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역기능의 문을 열었다.

거짓말은 동서고금의 지도자들이 애용해온 수단이다. 중국의 주 왕조는 자미궁에 사는 ‘천제(天帝)’라는 가공의 신을 만들어 지배력을 굳혔다. 히틀러의 거짓말은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선 신규 설정에 동의해주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히틀러의 거짓말에 속아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를 넘겨줬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유럽에서만 4720만 명이 희생됐다.

4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거짓말을 3만 573번이나 했다. 지난해 8월 도중 하차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118번 거짓말을 했다.

우리나라도 거짓말의 청정지역이 아니다. 대전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중

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여당 대표,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말한 전 법무부 장관, 거짓 해명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뒤흔든 대법원장 등 사회지도층의 거짓말 릴레이이는 현재진 행형이다. 사회 전반에도 거짓말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다. SNS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나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의 사기·무고·위증 등 국내 거짓말 범죄는 47만 6806건으로 전년보다 12.9%, 2017년 대비 24.6% 늘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병폐는 국제적인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카툼연구소가 발표하는 사회자본 순위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전체 167개국 중 139위에 머물렀다. 사회자본은 개인과 개인의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워 생산 활동에 도움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무형자산이다.

사회자본이 허약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허비된다는 의미이다. 거짓이 판치게 되면 사회는 응집하는 구심력을 잃고 이탈하려는 원심력만 강해질 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이를 반증한다.

‘귀는 닫을 수는 없지만 입은 닫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정직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나부터라도 거짓말하는 입은 다물고, 경청하는 귀는 열어야겠다. 상대의 거짓말은 호랑이의 눈(虎視)처럼 예리하게 쏘아보면서 말이다.

(대전 중도일보 3월10일자 계재)

영 전 · 승 진

DB손보 부회장, 5연임 성공



김정남(행정72, DB손해보험 부회장) 동문이 3월5일 DB손해보험 대표이사로 5연임에 성공했다. 2010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5

연임해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장수 CEO가 되었다.

KB생명 사장 3연임



허정수(경제80) 동문이 지난해 12월18일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KB생명 사장으로 선임(3연임)됐다.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등을 지난 재무통이다.

IBK저축은행 대표



서정학(영문81) 동문이 3월11일 주주총회에서 IBK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IBK저축은행은 IBK기업은행 자회사이다.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장, IB지원부장, 기술금융부장, IT그룹장을 거쳐 2020년부터 기업투자금융그룹장으로 일해 왔다.

KB국민은행 부행장



김운태(농경83) 동문이 지난해 연말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KB금융지주 SME부문장을 겸직한다. 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 중소기업고객그룹 전무 등을 역임했다.

하나은행 부행장



박승오(법학84) 동문이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 부행장(여신그룹)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본점 슬림화와 성과 중심 인사, 전문성 보유 임원 발굴을 원칙으로 단행됐다. 1993년 하나은행에 입행했으며 중앙영업본부장, 기업사업본부장, 여신그룹장 등 요직을 거쳤다.

건설공제조합 본부장



건설공제조합이 3월1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김진현(사회84, 사진 왼쪽) 동문이 보증공제본부장, 김창용(경영87)

동문이 경영지원본부장에 선임됐다.

김진현 보증공제본부장은 1990년 입사해 종로지점장, 경영지원실장, 여의도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김창용 경영지원본부장은 1993년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종로지점장, 중부보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3년이다.

KBC광주방송 사장



임채영(연영85) 동문이 3월8일 kbc광주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창사 26년 만에 최초의 내부 인사 출신 사장이다. 1992년 KBS를 통해 언론에 입문한 이후 1994년 kbc로 자리를 옮겨 보도국 취재기자, 광고사업팀장, kbc플러스 신사업본부장, 편성제작국장을 거쳤다.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수산처장

김자영(전자계산80) 동문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수산처장에 임명됐다.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장

최종백(전기공학81) 동문이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장으로 영전했다.

농협중앙회공주시지부장

박재명(경영90) 동문이 1월4일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으로 부임했다.

취 임 · 선 임

4.19유공자회 상근부회장



박영식(정치57) 동문이 사단법인 4.19공로자회 상근부회장으로 지난해 11월18일 부임했다. 1960년 4.19 당시 4학년생으로 동국대생들의 경무대 진출에 앞장섰으며, 동국대 4.19공로자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불교71, 前 동국대 총장)이 3월23일 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사법기관 수장인 호계원장에 선출됐다.

호계원은 총무원, 중앙종회와 함께 3부 기관으로 종단 화합과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종헌종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장



이화련(경영80) 동문이 2월18일 충북도새마을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상 정기총회에서 제21대 충북도 새마을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산동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SBS드라마 ‘펜트하우스’ 명연기 화제



김소연(연극99, 텔런트) 동문이 SBS 금·토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여자주인공 천서진 역을 맡아 열연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별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리면서 부동산과 교육 광풍이라는 현실을 풍자하는 인상을 준다.

지난해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펜트하우스1’로 2020년 중장편 드라마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김동문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방영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 역을 맡아 매 회차가 진행될수록 소름끼치는 명연기를 선보이면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 끝에 마지막회에서 30%에 근접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15회 마지막에 보여준, 그야말로 광기에 물든 채 피아노로 마제파를 연주하는 연기는 전설로 남을 명장면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한편 시즌2에는 안연홍(연영95, 텔런트)동문이 함께 출연하고 있어 동문사회 의 관심이 더 뜨겁다. 안동문은 인스타그램에 “동국대 연극영화과 파이팅. 나는 36기. 소연이는 40기”라고 덧붙이며 선후배간의 다정한 포즈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한진석(전자72, 알프스메디콤 대표) 동문이 최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의약품 도매를 하고 있는 알프스메티콤은 대학 등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 후학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행 사

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 추대식



베타스님(인철67)이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에 추대됐다. 은해사는 2월26일 오후 2시 육화원에서 ‘중화 법타 대종사 은혜사 조실 추대식’을 봉행했다.

조실은 산중을 대표하는 최고 어른이다. 동국대 정각원장, 은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평화통일불교협회장,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2020년에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항지역 학생 장학금 수여식



해운스님(불교11, 포항 원법사 주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4일 원법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40명에게 총 2천3백90만원을 전달한다.

사단법인 원법사장학회와 동국대학교 원법사 장학회를 운영하며 2008년부터 지역사회 공헌과 청년불자 양성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2억여 원, 동국대에 2억9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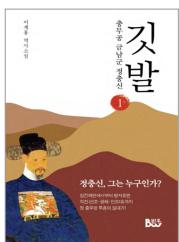
수 상

대한민국청소년 대상



조시승(경제69, 씨에스자산관리(주) 대표이사)동문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한민국청소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한 이 상은 청소년 관련 교육 문화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이다. 12월21일에는 서울시 온라인 뉴스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기자로서 유용한 서울 소식을 전하며 시정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특별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 역사소설 '깃발'

이계홍(국문65, 소설가, 前언론인) 본 총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이 2월초 대한 역사소설 <깃발> 전5권을 폐냈다. 바다에는 이충무공, 육지에는 한반도를 지켜낸 정충무공이 있었다 – 열일곱 소년의 나이로 2천5백리 길을 달려 의주로 피란 간 선조에게 장계를 전달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바로 그 자체이다. 정충신은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인 선조–광해군–인조 대의 무장으로 시대모순을 헤쳐나간 보기 드문 개혁파로서의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 책은 만 16세에 무과에 차석으로 급제한 뒤 생애 60년 동안 44년을 국방의 최일선에서 오직 군인의 외길을 걸어온 충무공 정충신의 삶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작가는 특히 광주광역시의 주 도로이자 5·18 민주화항쟁의 본거지인 ‘금남로’가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내린 시호(謚號)인 ‘금남군’에서 유래된 점에 유의하면서 광주 정신과 일치된 정충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려냈다.

(범우사 / 각 1만3천원)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

황 현(영문78, 전 MBC 보도국장)동문이 지난해 연말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을 출간했다. 와인의 뿌리부터 와인 등급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 와인과 인문학을 결합해 기존 와인 관련 책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저자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언론사 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한 저자는 유럽에 체류할 당시 세계 유명 와이너리를 직접 찾아가 양조 과정을 살피고 명품 와인들을 맛본 경험을 글로 기록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의 유명 와인 산지 여행기도 만날 수 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나파와 캐나다 온타리오의 유명 와이너리를 방문해 양조 과정을 지켜보고 산지 와인을 직접 맛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작가는 책 뿐만 아니라 유튜브 ‘와인채널’ 통해서도 와인 한 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공사 / 2만원)

은퇴 설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덕수(법학75,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객원교수)동문이 ‘은퇴 설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책을 2월5일 폐냈다. 산업사회의 발전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가능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서 생성된 일중심의 생활 습관이 은퇴자의 자유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명은 길어졌으나 준비 안 된 복지, 연금제도 등의 애쉬움이 은퇴자들의 긴 은퇴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설계 논의가 너무 재무위주로 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해 비재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 그래서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은퇴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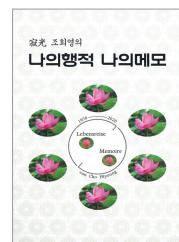
(박영사 / 1만4천원)

국내산 6년근 홍삼액 100%

Since 1969

100% 국내산 품질 좋은 인삼만 사용해 직접 만든 홍삼을,
50시간 저온으로 우려낸 진한 홍삼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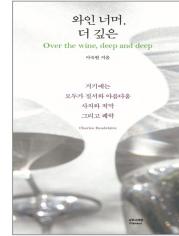
명물자수기업 **유엔아이** **NAVER** **백년지기우리홍삼** **검색**

나의 행적 나의 메모

조희영(경영63, 동국대 명예교수) 본회 고문이 지난해 12월28일 ‘적광 조희영의 나의 행적 나의 메모’를 폐냈다. 이 책은 조 고문의 행적과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모아 만든 메모집이다. 이 메모집 원고의 절반은 독일어로, 그것은 조 고문의 행적의 많은 부분이 독일과의 인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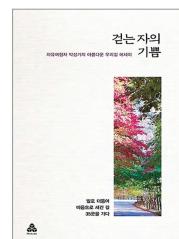
독일 본대학 박사학위 지도교수 서한, 재독한인연합회 취임 및 한인회 활동, 콘라드아데나워장학재단 학술발표대회, 베를린 한·독 경제학자대회, 동국대-레겐스부르크대학간 학술교류 협상 체결, 독일경영학회 활동, 동국대 교수시절, 가족사항 등의 관련내용이 담겨 있다.

(탭북스 / 비매품)

와인 너머, 더 깊은

마숙현(국문71)동문이 3월22일 ‘와인 너머, 더 깊은’ 책을 폐냈다. 와인의 객관적 사실과 정보에 몰두할 필요 없이 와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와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와인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와인을 어떤 방법으로 즐기는지, 와인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저자만의 체험적 글쓰기로 그동안 우리가 와인에 대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펼쳐낸다. 저자의 와인 이야기는 삶의 영역으로 떠오른 시, 소설, 철학, 역사, 그림, 음악, 달리기, 사랑, 영화, 커피, 음식, 헤이리에서의 일상 같은 모든 것이 와인과 어우러져 와인을 사랑하고 와인의 본질에 다가가는 개별적 방식으로 잠언화한다.

(사무사책방 / 1만9천8백원)

걷는 자의 기쁨

박성기(국문82)동문이 지난해 자유여행자 박성기의 아름다운 우리길 에세이 ‘걷는 자의 기쁨’을 폐냈다. 이 책은 한 자유여행자가 대한민국 명품 길에서 만난 35가지 길, 사람, 자연, 실존에 관한 영혼의 글 · 사진 에세이이다.

저자는 그가 다녔을 무수한 길 중에서 35개 아름다운 길 417.4km를 걸으면서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짧은 코스는 4km도 있지만 한국의 차마고도라 불리는 정선의 새비자 코스는 24.5km로 8시간이나 소요된다. 한번만 다녔을 길도 있겠지만 책을 읽다보면 어느 길은 계절마다 찾은 곳도 있고, 소개한 코스와는 다르지만 그 지역을 중첩하여 걸은 길도 등장한다. 책에 소개한 코스만을 걷는 데 172시간이 소요되었다니, 시간당 평균 2.4km를 걸은 셈이어서 ‘주마간산’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스무 번이나 지나치며 두 발로 뚜벅뚜벅 거닐었던 이 땅의 산길, 바닷길, 섬길, 숲길, 강길, 고갯길에 관한 진면목을 연필로 꾹꾹 눌러써 왔다. 그렇게 걷고 느끼고 감동한 35곳의 아름다운 우리길에는 저자의 내면의 소리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어우러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걷는 자의 자유와 희망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마인드 큐브 / 1만8천원)

<https://noeulsangjo.modoo.at>
사진상담 및 회원가입 시 기념품증정

장례를 돋는 사람들입니다.
진심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5
삶의 마지막 한걸음
따듯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빙니다.

노을상조 100% 후불제 상담문의 010.9665.8110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YouTube



구독 좋아요 공유

유튜브에서 **한국불교대학, 우학스님**을 검색해 보세요.
불자님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불교대학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불교공부'와 '무일불교의범(불교의식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우학스님의 생활법문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염주의 힘
빠른 업장 소멸법
환생했다면 제사가 무슨 소용?
신묘장구대다라니 영험
이름, 개명에 대하여
풍수지리, 이사 방위에 대하여

- 우학스님의 한자성어 강좌

- 우학스님의 책읽어드립니다
- 금강경독송, 다라니독송, 관음정근 등
- 경전. 선어록 강의(육조단경, 금강경)
- B.U.D 山海 세계명상센터
- 무일선원 & 무문관
- 맴버십 불교강의

✓ 극락남골봉안당
✓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 도서출판 좋은인연

✓ 유튜브 명상법당
✓ 영천 참좋은요양병원
✓ 참좋은어린이집·유치원

✓ B.U.D 세계명상센터
✓ 무일선원 & 무문관

✓ 무일복지재단
✓ B.U.D 펜션(세계명상센터 신중점)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기도접수 및 안내 053-474-8228
■ 극락남골봉안당 문 의 010-6296-0108
■ 청도이서중 학교 입학문의 054-372-4592
■ 청도이서고등학교 입학문의 054-372-4593



대자기업주식회사

ISO 9001 인증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석규

(토목 68人)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SHG 주식회사 삼호글라스

삼호판유리(주) | 삼호복층유리(주) | 삼호강화유리(주)

회장 조 용 국

(불교대학원 CEO과정 8기)

그린 복층유리 최초 개발자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 산악회장

Mobile. 010 . 5248 . 153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323번길 17 (구. 이동교리 337번지)

Tel. 031-542-1888, 031-544-8844 / Fax. 031-542-1887
E-mail. shglass35@hanmail.net

www.ehsp.co.kr



해 성 약 품 (주)
(주) 진 선 메 디 칼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대표이사 안 형 모
(통계학과 75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냉장고

삼성전자 제품 B2B 견적이 궁금하다면?

삼성전자 스타파트너 삼원아트무역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비즈니스

삼성전자 B2B 가전제품
정품 잉크 및 토너
A4 용지

자사몰 바로가기

SAMSUNG 프린팅파트너
(주)삼원아트무역



전화 문의 02-521-8857



토너
잉크
복사용지



에어드레서
공기청정기

겨울을 지나 꽃을 피웁니다

미디어블라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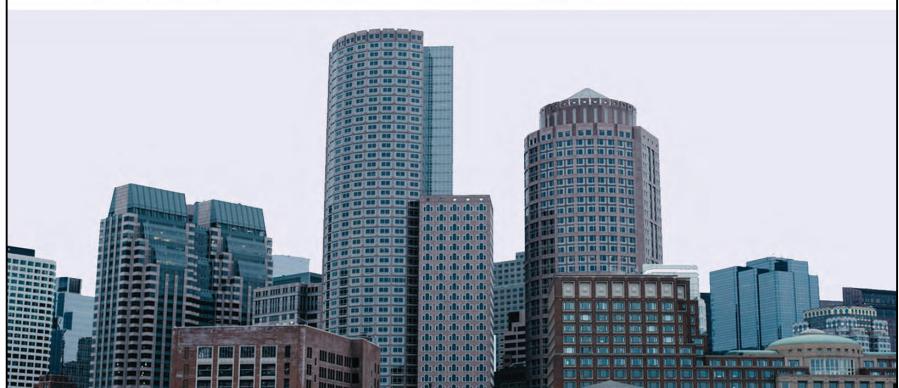
통신업 / 방송프로덕션 / 방송프로그램제작

대표 / 방송제작 PD
김 태 현
(정보관리학전공 2000卒)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5가길 5-1 | Mobile. 010. 8743. 2415

다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원룸 · 오피스텔 · 아파트 · 사무실 · 건물 전문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부동산 컨설턴트
- 부동산 경매

대표/공인중개사 **박 완 순**
(영어영문학과 85)
서울 종구 퇴계로86길 47 (신당동)
Mobile : 010-9096-3199
TEL : 02-2236-5200



INHIVE
contents group

VR/AR/MR 콘텐츠 제작
S3D 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



(주)인하이브 | 08594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 912호(대륭테크노타운 20차)
TEL. 02) 6012-9157 FAX. 02) 6012-9158 Homepage. www.inhive.co.kr
E-Mail. inhiveyoun@inhive.co.kr



현대불교



대표이사
혜 도
(사회과학대학원 00)

(주)현대불교신문사 THE HYUNDAE BULKYO
Mobile. 010. 3096. 60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운니동)
Tel. 02-2004-8200 / Fax. 02-737-0696
E-mail. wiseway3@hyunbul.com, wiseway3@hanmail.net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3월 31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발전기금



송석환 (64농경)
5,000,000원



김오현 (76체교)
1,700,000원

고문 분담금

100만원



권오준 (59영문)
초허당장학재단 이사장



김진문 (64경영)
신성약품 대표이사



박종운 (56경제)
세창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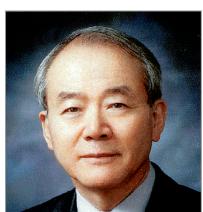
성우스님 (77승가)
학교법인동국대 이사장



송석구 (58철학)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송석환 (64농경)
동진기업 회장



심경모 (57영문)
서정연구소 대표



윤성영 (83농경)
동국대 총장



일면스님 (75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전순표 (53농학)
세스코 회장



조창현 (64경행)
국방부군사 연구위원



조희영 (59경영)
동국대 명예교수



한우삼 (63농학)
태양금속공업 회장



형종호 (56법학)
前 삼공기어공업 회장



부회장 회비
100만원



공영대 (78화학)
동국대 화학과 교수



김문선 (79전자)
다물시스텍 대표이사



김영철 (68경영)
초대 대표이사



김오현 (76체교)
BK그룹 회장



김진익 (73경영)
우진INS 상임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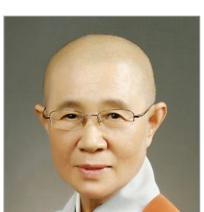
김창규 (80법학)
솔루션합동법률 변호사



나경미 (70정외)
제일테크노스 명예회장



명성스님 (64불교)
청도운문사 회주



명우스님 (67불교)
성심사 주지



문선배 (75경영)
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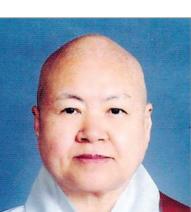
민성기 (68법학)
삼신화성산업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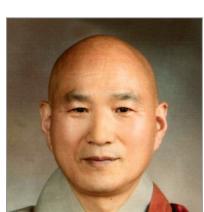
박공서 (88행대원)
음미디어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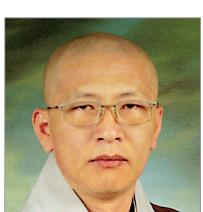
박용기 (83한의)
동국대 경주캠퍸 교수



법운스님 (95불대원)
청룡사 주지



성웅스님 (91불대원)
노악산 남장사 주지



성월스님 (92불대원)
학교법인동국대 상임이사



손학중 (65농경)
성문산업 대표이사



우학스님 (84선학)
대관음사 회주



윤미정 (81수교)
YK education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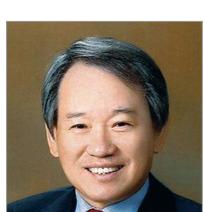
이계방 (72법학)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이상진 (00경대원)
대풍그린농원 대표



이승성 (76체교)
은민에스엔디 대표이사



이영권 (11대학원)
대화알미늄 대표이사



장세균 (67철학)
전북일보 논설위원



정진태 (00행대원)
진우산전 대표이사



혜담스님 (01불대원)
계태사 회주



홍종표 (94행대원)
대원인터넷내셔널 대표



황경환 (87교대원)
진양유조선 회장

평생회비 50만원

김성일 (86건공)
이정철 (5경행)
전호련 (78승가)

지도위원 30만원

강병국 (64농경)
김동대 (58경제)
김보열 (57경제)
김수창 (65불교)
김용길 (61법학)
김진하 (71무역)
성낙흔 (82행대원)
신현태 (54경제)
심현식 (59상학)
양규철 (64농학)
유영수 (62행정)
윤청광 (59영문)
이광세 (86경대원)
이상호 (60국문)
이재호 (79경대원)
이점구 (96산업기술대학원)
이체곤 (64경제)
이진호 (64경)
정환민 (65농학)
조홍기 (58영문)
종상스님 (86행대원)

상임이사 20만원

구태희 (87행대원)
권정의 (98대학원)
김경자 (81영문)
김래동 (80행대원)
김문경 (64농경)
김장기 (95경대원)
김현권 (80체교)
노화숙 (67경영)
류복수 (95사과대)
박광준 (85경영)
박상관 (79행정)
박종세 (92경영)
방재홍 (79경영)
안명근 (65농학)
유국현 (79화학)
이강우 (00경영)
이기영 (78경제)
이창상 (85행대원)
이춘필 (99불대원)
진각화봉스님 (88한의대)
최승호 (84회계)
최우봉 (79전자계산)
허정수 (80경제)
홍선기 (69정이)
황동휘 (79행정)

이사 10만원

구광모 (74행정)
구학모 (90행대원)
김도연 (79국사)
김명길 (70공업경영)
김미현 (13행대원)
김병우 (65승가)
김상구 (74경)
김인순 (80경대원)
김진길 (72행정)
김태웅 (91행대원)
김현진 (07대학원)
나채문 (99환경과학)
목영만 (94경영)
박대운 (77사과대)
박상군 (64국문)
박운규 (85목공)
박인동 (79사회)
박종구
박천운 (67행정)
반석규 (16경찰사법)
백경선 (80불교)
서동부 (92사과대)
성순경 (93불대원)
안성준 (83영문)
안수일 (80미술)
안영찬 (85경영)
어윤소 (65경제)
오근옥 (72회계)
오선호 (84영문)
오택원 (73국문)
우철희 (89경제)
유병돈 (73공업경영)
유종희 (61농경)
윤대호 (75전공)
윤천수 (72정외)
이경현 (64상학)
이권하 (76식공)
이병노 (86경행)
이상훈 (86행정)

이용석 (73정외)

이윤래 (61행정)

이정길 (59경제)

이진국 (72경영)

이춘섭 (78체교)

이판우 (89경제)

임영수 (71무역)

임 준 (81체교)

장승수 (88언정대)

정호경 (95불대원)

조남현 (73무역)

조석규 (68도공)

지재성 (78공업경영)

지종스님 (07한국음악)

진성스님 (76승가)

김상규 (98국정대)

김상식 (79도시행정)

김석중 (02대학원)

김성민 (89경영)

김성수 (80무역)

김성호 (93행대원)

김성호 (96문예대)

김세영 (57경제)

김소연 (99연영)

김순재 (52경제)

김시현 (60임학)

김신복 (86물리)

김안균 (71경영)

김애경 (85통계)

김연호 (64경)

김영균 (81전기공학)

김영미 (03문예대)

김영삼 (89산공)

김영석 (75농경)

김영수 (66정외)

김영호 (99경대원)

김영화 (67위생공학)

김원석 (81농학)

김원주 (63통계)

김용근 (76공)

김용상 (59경제)

김용설 (90회학)

김용운 (95문예대)

김용원 (01사과대)

김용홍 (64경행)

김원복 (59영문)

김원철 (68영문)

김윤경 (89농생)

김윤기 (64임학)

김윤숙 (75무역)

김윤겸 (86농학)

김윤희 (90통계)

김용조 (58불교)

김유배 (79무역)

김유진 (63법학)

김정남 (83수교)

김정우 (85행정)

김정의 (61경영)

김중곤 (70건공)

김중국 (82경영)

김종민 (69공경)

김종신 (61식공)

김종인 (08경대원)

김종천 (79수학)

김종환 (61불교)

김주갑 (60법학)

김주남 (73경대원)

김준수 (86경제)

김지권 (82영문)

김진근 (77토교)

김진영 (79전공)

김진동 (96경영)

김경혜 (66행정)

김경희 (08문예대)

김계현 (56경제)

김광덕 (71영문)

김광영 (59경영)

김교남 (61불교)

김교식 (75농학)

김규원 (81영문)

김근배 (86식공)

김기복 (87행대원)

김기원 (59법학)

김기주 (79국문)

김기포 (73경제)

김기형 (68위생공학)

김기현 (60경대원)

김기현 (60경)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갚기 힘든 빚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연체 0~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법원 채무조정제도

법원 신청 접수 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소송구조기관 연계)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분에게 유리한 제도

채무조정 지원으로 상환이 어려우며,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브로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접수,
모바일로 간편하게!



Google play

App Store

신용회복위원회 APP(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하세요

| 전화상담 ☎1600-5500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인터넷 상담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

www.ccrs.or.kr

1600-5500